

사회

# 한파 때문에... '애꿎은 망부가'

■ 여수 노부부 토굴 화재 70대女 숨져

■ 완도 조난부인 구하려다 30대男 실종

“술병 감추지 못해 참변 미안하오”

“추위 속 날 구하려던 당신 어디에”

“오늘은 내 아내 술병을 감춰두지 않았을까. 여보 미안하오.”

16일 오전 10시께 여수의 한 섬에서 거주하던 노부부의 토굴에 불이 나 이모(여·75)씨가 숨졌다. 남편 강모(82)씨는 술을 마시던 집을 나가 정처 없이 떠돌던 부인을 돌보기 위해 일구며 30여년을 살아왔다.

좁은 섬에 있으면 부인이 집을 나가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다 술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노부부가 이 섬을 떠나지 못한 이유였을 거라고 노부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전했다. 여수시 월호동 주민센터 손시현(여·37) 복지사는 “젊은 시절부터 할머니가 술을 마시면 집을 나가 며칠이고 돌아오지 않고 떠돌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연고도 없는 섬에 정착한 것 같다”며 “오늘 만난 할아버지는 ‘시장에 가면서 술병을 감춰놓아야 했는데 급히 나오느

라 미처 감추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강씨는 배로 5분 거리에 있는 여수 봉산선착장에 반찬을 사러 다녀오던 중 집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

강씨 부부가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토굴에서 생활한 것은 3년 전 기거하던 가건물에 불이 나면서부터. 이들은 물에서 사는 자식들이 거주지를 옮기자 설득에도 30년 이상 살아온 섬을 떠나지 않았다. 토굴은 1.5m 깊이에 15㎡ 넓이로 천장과 바닥에는 보온용 스티로폼 등을 깔아 놓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할머니의 머리가 토굴 입구로 향한 점 등으로 미뤄 술을 드신 할머니가 불을 끄려다 변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토굴 안에 설치해 놓은 나무 난로에서 불길기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원을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조난당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 한파 속에 차디찬 바닷물에 뛰어든 30대 남편이 실종되고 부인만 구조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북 양식장을 해오던 최모(38·완도군 노화읍 서남도)씨가 부인 김모(35)씨와 함께 완도군 노화읍 후장구도를 찾은 것은 16일 새벽 0시20분께. 최씨 부부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구를 1.6급 전복양식장 관리선에 태워 마을까지 데려다 준 뒤 배머리를 다시 서남도로 돌렸다. 서남도까지는 직선거리로 600여m.

순발의 갑자기 무더질 만큼 바닷바람은 매서웠지만 바닷길은 순조로웠다. 그러나 칠혹같이 어두운 밤 바다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출발한 지 5분여가 지났을 무렵, 후장구도에서 300m 떨어진 바다 위에 설치된 전복양식 바지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했다.

다행히 다치지지는 않았다. 최씨는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구조 요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최씨 부부는 고민에 빠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저체온증으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썰물처럼 밀려왔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후장구도까지 헤엄쳐 가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신과 부인이 살 길이라고 판단한 최씨는 극구 말리던 부인의 손짓을 뒤로한 채 바다에 몸을 던졌다. 김씨는 8시간30분간 바다에서 홀로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남편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사고 해상을 지나던 마을 주민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은 헬기 1대와 경비정 4척 등을 동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대입 상담센터 인기** 16일 광주시교육청 별관에 마련된 대입 상담센터에서 수험생들이 진학담당 교사에게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개설된 대입 상담센터에서는 현직 고교 진학부장으로 구성된 상담팀이 수험생의 성적, 적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완도해경, 보조금 편취 어민 10명 조사

완도해양경찰은 해양자원 조사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취한 완도군 A어촌계 어민 10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장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족 자원과 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4억2천만 원을 투입하는 완도군의 마을 어장

전복 살포사업에 참여하면서 자부담금을 투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전복 종패 단가를

부풀리거나, 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준공서류를 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들 외에 다른 어촌계도 이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원도=정문조기자 ejchung@

### 판결·결정 3題

## 오토바이 운전자 부주의 이유로 보험사, 치료비 10%만 준건 잘못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법정 진료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손모(42)씨와 L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는 손해액의 10%와 위자료 등 1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배상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손씨의 과실비율을 90%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지만, 과실비율을 따진 손해액이 피해자 진료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 진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2006년 3월 오토바이를 몰고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도로를 지나다 후모래에 미끄러지면서 근처에 불법 주차된 승합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승합차 보험사인 L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선 승합차가 손해를 키운 면은 있지만,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손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봐 L보험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10%로 제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각막이식 수술 실명 위험 안알린 병원·의사 위자료 1천만원 줘야

### 광주지법

의사가 수술 실패로 인한 후유증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실명 등 수술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진형 부장판사는 16일 유모(61)씨가 전남대병원과 이 병원 안과 의사 윤모(37)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대병원과 윤씨는 유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수술 전 약물치료나 재수술 가능

성만 주지시켰을 뿐 수술 후 실명 등의 위험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과정에서 의도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손해배상 범위를 정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윤씨의 권유로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뒤 안압상승과 녹내장 증상을 보여 윤씨로부터 소개받은 양씨에게 다시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왼쪽 눈이 실명돼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산후조리원 신생아 얼굴 흉터 배상

### 광주소비자분쟁조정위

한국소비자위원회는 16일 광주시 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A(32)씨의 딸(2) 성형수술비로 254만7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4월 7일 딸을 출산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15일까지 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와 함께 입원해 간호를 받던

중 신생아의 우측 볼에 2.5cm 길이의 흉터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성형수술비 등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아이가 목욕하다 길이 2.5cm 흉터를 낼 만큼 손톱이 자라지 않았고, 설명 목적을 하다 흉터가 생겼다 하더라도 목욕을 시킨 산후조리원 측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원침 (7981) 김중두



### 검찰, 순천시의원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선거구민에게 동창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순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의원은 지난 1월 순천 모고등학교 동창회회장 이·취임식 초청장 654통을 선거구 부녀회장 등에게 발송하고, 26명에게 6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허태민기자 haggia@

### “돈 안주면 죽이겠다” 애인 친척 협박

○광주남부경찰은 16일 애인의 친척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A(27)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추가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께 공중전화로 이용해 자기 애인(25)의 고모인 B(51)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2억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과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전화를 걸어,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혐의.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애인의 친구 부모를 비슷한 방법으로 협박해 구속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는데, A씨는 경찰에서 “애인과 사귀어 오면서 친척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성을 다하는 업소! 장수바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맛있는 장어! 느끼하지 않는 장어!

# 장수바다장어

대표 김용진

점심특선메뉴  
**장어탕 (6,000원) 장어정식 (11,000원)**

저희 장수바다에서는 순 100% 마타 천연산물을 사용하며 전문 요리사가 최고의 재료와 맛으로 엄선하여 정성을 다하여 요리합니다.

100% 자연산

찾아오시는 길  
 ● 개령신당  
 장수바다장어  
 상무소각장 편대이차도 한국은행 KRB 5·19광화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002-30 (현대아파트 맞은편)

저녁/특/선/메뉴  
 불장어 사분사분  
 불장어 찜  
 불장어 주물럭  
 새조개 사분사분  
 불장어 스스, 소금구이

Wall-being Food  
 장수바다장어 \* 계모임, 동창회, 회식 등 친목단체 모임 대 환영! **단체 및 예약문의 ☎(062)383-1110**

##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1.21(목) ~ 2010.01.26(화) / (총 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규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개발업 3년 종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고급·특급),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양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중 개발 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 67만원 (교재 및 점심식사 제공, 강의를 사후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http://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의/전/화 [www.gred.kr](http://www.gred.kr)

• 원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 부원장 김동욱 변호사 062)233-3119 f.062)233-3117

### 대운공인중개사

☎011-9618-3356, 955-0808

### 빌딩매매

- 토지 330평 건물 2300평 매대가 50억 보증금 5억 월 5200만원
- 토지 310평 건물 350평 매대가 28억 보증금 5억 월 1700만원
- 토지 160평 건평 650평 매대가 24억 보증금 8억 1000만원
- 토지 95평 건물 280평 매대가 12억 보증금 2억 월 700만원
- 토지 85평 건물 310평 매대가 12억 보증금 15000만원 월 800만

● 광주 전지역 ●  
 수익 상가건물 구입니다 (매수자 대기중)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을 비밀리에 매매해드립니다.

상가 ☎ 955-0808  
 전문 FAX 955-0308

### 가은공인중개사

☎ 371-4449 / 010-8289-8549 (상무지구 렌트피아사거리)

### 신축중인 최고급 무인텔 매매

광주 하남상업지역내

대 지 : 736평  
 연건평 : 883평  
 객실 : 32개

매매가 65억원  
 용 자 : 30억원  
 월매출 : 1억원

이상 보장  
**공동중개 환영합니다.**